

특조위 “해군,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

〈영상저장장치〉

해군 수거 당시 원본과 검찰 확보한 것 달라 영상 조작·편집 의심
참사 발생 3분전 영상만 존재...침몰원인·구조상황 확인 못해
가짜 DVR 동원 가능성 커...데이터에도 손 댄지 조사키로

해군이 세월호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CC-TV 영상저장장치(DVR)가 원본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군이 세월호에서 DVR을 수거하면서 고의적으로 원본 본체를 바꾸고, 영상까지 고의적으로 조작·편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에서는 참사 발생 3분 전까지의 영상만 존재할 뿐, 침몰원인과 선내 구조상황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DVR은 세월호 선체 내 설치됐던 64개 CC-TV 영상기록을 한 곳에 저장한 영상저장장치로, 세월호 침몰 원인·구조 과정 등을 담겨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로 꼽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특조위는 이날 "해군이 2014년 6월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해군이 수거해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내 유류물처리반 뒤편 DVR이 서로 다르다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당시 해군이 DVR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수중영상을 보면 영상 속 DVR은 오른쪽 손잡이 안쪽 부분에 고무패킹이 떨어져 있었지만, 검찰이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내 유류물처리반에서 확보한 (해군이 수거한) DVR에는 고무패킹이 그대로 붙어있었다"면서 "특히

영상 속 DVR은 전면부의 열쇠구멍이 수직으로 '잠금' 상태였지만, 바뀐 것으로 의심되는 DVR은 열쇠구멍이 수평으로 '잠금 해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해군이 원본 DVR을 수거한 뒤 가짜 DVR을 유류물처리반에 놔두는 수법으로, 검찰이 원본으로 착각해 수거할 수 있도록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에서 DVR을 수거한 해군 중사의 진술과 작업 당시 담긴 수중영상 모습도 엇갈린다.

DVR을 수거한 A중사는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확인하고 케이블선 분리·수거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에서는 분리·수거작업 과정이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A중사는 또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확인하고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케이블 커넥터가 달린 케이블선을 분리했다고 진술했고,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의 벨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커넥터(5개)는 발견되지 않

았다.

특조위는 이 같은 여러 단서를 종합해 보면, 해군이 수거해 유류물처리반에 놔둔 DVR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가져오지 않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증거인별 우려가 있고, 관련 증거에 관한 제보가 절실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조사 내용을 중간에 발표하게 됐다"며 "(CCTV 화면 조작 여부에 대해)데이터에도 손을 댄지 들여다보고 있다. 데이터에 손을 댄 증거가 확보되면 복잡하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DVR, 손잡이가 다르다”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회에서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해군이 세월호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의 본체가 바뀌고, 녹화영상 조작이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 '60세 전 정년퇴직' 노사합의·내규는 “무효”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

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다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승소한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격 없이 예금기록 변조 개인회생 법조 브로커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48)씨를 구속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격으로 188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수입료 3억650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법무사 명의를 이용해 병행했으며 개인회생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변조된 은행 예금 거래 내역 180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서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국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했으며 서류를 이상하게 여긴 광주지방법원 측에서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두환 자택 앞 미신고 시위 5·18단체 간부 기소유예

검찰이 전두환(88)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미신고 시위를 한 혐의로 송치된 5·18 단체 간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 부장검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오월을 사랑하는 모임’ 관

계자 A(55)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정황·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회고록 수사와 관

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규탄하며 30여분간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폭력 집회가 아닌 점, 기자회견 후 우발적으로 시위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의처증 추정 50대 이혼 한달여만에 전처 직장 찾아가 흥기 찌르고 자해

화순서 참극...둘다 숨겨

의처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0대가 이혼한 전처의 직장인 보건의소를 찾아가 근무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본인도 자해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긴급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28일 화순경찰 등에 따르면 A(52)씨는 28일 오전 11시20분께 지난 2월 이혼한 전 아내 B(54)씨가 근무하는 화순의 한 보건의소를 찾아갔다.

근무중이던 B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갑자기 찾아오자, 당황한 나머지 직장 동료들을 피해 비어있는 진료실로 함께 들어갔다. 1~2분 뒤 진료실에선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상함을 직감한 동료 직원들이 진료실로 뛰어 들어갔지만, 이들은 이미 둘 다 복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B씨는 이날 낮 12시 27분께, A씨는 4분 뒤인 12시 31분께 숨졌다.

경찰과 B씨의 직장 동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 1993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는 등 원만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남편 A씨가 갑자기 아내의 사생활을 의심하는 증세를 보이면서 다툼이 잦아졌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지난 2월 이혼을 한 뒤 각기 다른 곳에서 생활해 왔으나,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에 대한 애착과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를 찾아가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건설장비 ‘수상한 인허가’ 광주경찰, 자치구 내사 착수

건설장비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 간 돈거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특수 건설장비 인허가 업무를 전수조사해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자치구 한 곳에서 교통과 소속 공무원 직원 1명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건설장비 변호판을 제한 기간에 발급한 담당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실수로 일어난 일이며 금전 대가는 없었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자치구 2곳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나머지 1곳도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항암치료제 수입신고 않고 판매·불법투약 3명 적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회사의 항암 면역치료제를 들여와 판매하고 불법 투약한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수입업체 대표 김모(36)씨와 직원 1명을 구속기소 하고 간호조무사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약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의 O 업체에서 4억원 상당의 항암 면역치료제를 수입판매하고 의사 처방 없이 17차례에 걸쳐 주사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주사제를 ‘맞춤형 백신’이라며 환자 1명당 6회 주사에 5000만원, 11회 주사에 9000만원 등 주사 1회당 10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출소 후 갈 곳 없어요”...본인 구속시킨 형사 찾아와 도움 호소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천애고아인 20대가 본인을 구속시킨 경찰서 형사를 찾아와 도움을 호소.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지난해 7월 교회에서 약기를 훔친 혐의로 8개월간의 복역을 마친 A(24)씨가 북부경찰서 형사과를 찾아와 본인을 검거했던 강력팀 이재욱 형사를 찾아 왔다는 것.

○...A씨는 “출소하고 갈 곳 없으면 찾아오라”는 형사의 말 한마디를 믿고, 자신을 잡은 형사를 찾아와 “배고프고 지낼 곳이 없다”고 호소.

○...경찰관계자는 “출소하자마자 찾아온 것이 딱해 A씨를 노숙자 쉼터에 임시 입소시키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취업을 알선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부채	276,304,869	유동부채	859,742,719
1.유동자산	202,747,130	미지급금	472,547,955
(1)당좌자산	89,365,581	예수금	11,521,680
현금및현금성자산	111,237,280	단기차입금	200,000,000
매출채권	(1,112,372)	미지급비용	75,673,084
대손충당금	1,730,780	유동성장기부채	100,000,000
미수금	0	비유동부채	2,950,000,000
선급금	1,485,991	장기차입금	2,950,000,000
선급비용	0	부채총계	3,809,742,719
부가세대금	39,870		
납세금	73,557,739	자본	
(2)고자산	30,600,000	I.자본금	990,000,000
제조품	42,957,739	자본금	0
원재료	3,678,913,563	II.자본잉여금	0
II.비유동자산	2,350,800	III.자본조정	△5,796,000
(1)투자자산	2,350,800	주식발행초과금	△5,796,000
퇴직보여치금	3,674,562,763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2)유형자산	1,480,891,156	V.결손금	
토지	782,949,508	미처리결손금	838,728,287
건물	(19,573,737)	(당기손실)	
감가상각누계액	1,579,354,138	당기: 832,741,486원	
기계장치	(151,355,392)	전기: 5,966,789원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자본총계	145,475,713
공구와기구	(1,315,416)		
감가상각누계액	25,907,270		
비품	(9,294,764)		
감가상각누계액	0		
(3)무형자산	2,000,000		
(4)기타비유동자산	2,000,000		
임차보증금	3,955,218,432	부채및자본총계	3,955,218,432
자산총계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부채	4,216,045,567	유동부채	1,048,238,434
(1)당좌자산	4,106,451,567	1.매입채무	41,140,042
1.현금및현금성자산	3,052,575,459	2.미지급금	611,665,393
2.매출채권	1,064,596,094	3.예수금	30,159,473
(대손충당금)	(143,249,618)	4.미지급법인세	311,437,524
3.미수금	65,217,403	5.예수부가치세	53,836,002
(대손충당금)	(1,951)		
4.선급금	2,790,550	II.비유동부채	799,470,980
5.선급비용	38,947,715	1.퇴직급여충당부채	802,614,080
6.유동성인면인채	25,575,915	(국민연금전환금)	(3,143,100)
(2)고자산	109,594,000	부채총계	1,847,709,414
1.자부채	109,594,000	자본	
II.비유동자산	6,577,486,101	I.자본금	500,000,000
(1)유형자산	6,326,839,460	1.보통주자본금	500,000,000
1.토지	1,725,537,050	II.자본잉여금	4,232,607,645
2.건물	2,958,969,229	1.주식발행초과금	4,232,607,645
(감가상각누계액)	(936,022,419)	III.이익잉여금	4,213,214,609
3.구축물	202,677,445	1.미처분이익잉여금	4,213,214,609
(감가상각누계액)	(47,199,648)	자본총계	8,945,822,254
4.기계장치	5,150,214,336		
(감가상각누계액)	(2,740,167,931)		
5.차량운반구	590,212,195		
(감가상각누계액)	(583,335,051)		
6.공구기구비품	218,555,457		
(감가상각누계액)	(212,601,203)		
(2)기타비유동자산	250,646,641		
1.장기금융상품	8,716,800		
2.보증금	18,000,000		
3.비유동성인면인채	223,929,841		
자산총계	10,793,531,668	부채와자본총계	10,793,531,668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금액-8억
- 문의. 010-3605-500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사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 ↓

식후 2배수식~ 하루 2배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2박스 구매하신 분께 한달분 더 드립니다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